

# 소유와 접촉, 감상의 행복 미래세대의 음악으로 부활하는 LP

글 하중욱 마장뮤직엔터테인먼트 대표(gayahane@mcmp.co.kr)



지난 6월 1일, '나'와 '우리'가 소속된 회사 '마장뮤직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개발한 LP 프레스 기계의 성공적 가동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내 유일의 LP 생산 설비·시스템을 보유한 '우리'를 향한 관심과 기대는 실로 뜨거웠다. 지난 몇 달 사이 '우리'는 그 기대만큼의 수고를 톡톡히 치루고 있다. 론칭 이후 주말에도 공장은 쉼 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매주 평균 한 타이틀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의 LP가 찍히고 있다. 2017년 현재 아날로그 음악, LP의 부활이라는 주제에 있어 한국에서만큼은 명백히 '우리'는 주체이며, 주연에 해당한다.

## LP 부활의 증표들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LP이다. 1948년 처음 소개될 당시 양면을 합해 약 45분 내외를 수록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LP(Long Play)라는 이름을 얻었다. PVC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닐(Vinyl)이라는 별칭도 있다. LP는 40년 가까운 권세를 누리다 디지털 재생의 편리함을 내세운 CD(Compact Disc)의 등장으로 1990년대 초, 종반을 기점으로 낡음이 됐다. 그런데 2010년 즈음부터 난데없이 LP는 '아날로그', '부활'이라는 주제어와 함께 부흥의 역사를 쓰고 있다. 처음에는 복고, 레트로 붐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그 전망과 평가는 보기 좋게 비켜갔다.

LP 시장의 부활과 관련된 통계와 자료는 넘치도록 많다. 그 중 공신력 있는 주요 출처는 '국제음반산업협

회(IFPI)'와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를 들 수 있다. IFPI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500만 장이었던 전 세계 LP 판매량은 2015년 기준, 3200만 장으로 7년 사이 6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이는 1994년 이래 최대의 판매량이었다. 2017년에는 4000만 장에 가까운 판매량을 예측하고 있다. '포브스'지는 LP와 관련 상품의 시장 규모가 2017년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4~5년 전부터 매출 규모에서 LP가 CD를 역전한 상황이다. 음반사의 수익 규모도 스트리밍, 다운로드의 수익보다도 높다는 자료가 있을 만큼 LP는 전체 음반 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미국음반산업협회 2015년 수익 보고서 기준).

그러나 한국의 LP 시장은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댄 수준이다. 정확한 시장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국내 LP 시장은 2016년 기준 28만 장 내외, 2017년은 약 32만 장 내외다. 매출액 규모는 약 100억 원대. 이는 국내 최대의 LP 유통망을 지닌 온라인 물의 판매량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적용한 예상 추정이다. 전체 세계 시장의 약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6년 전에 비해서는 20배의 판매량, 매출액은 3년 사이 6배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 LP 제작·생산 기반은 국가 경쟁력

외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LP 산업', '바이닐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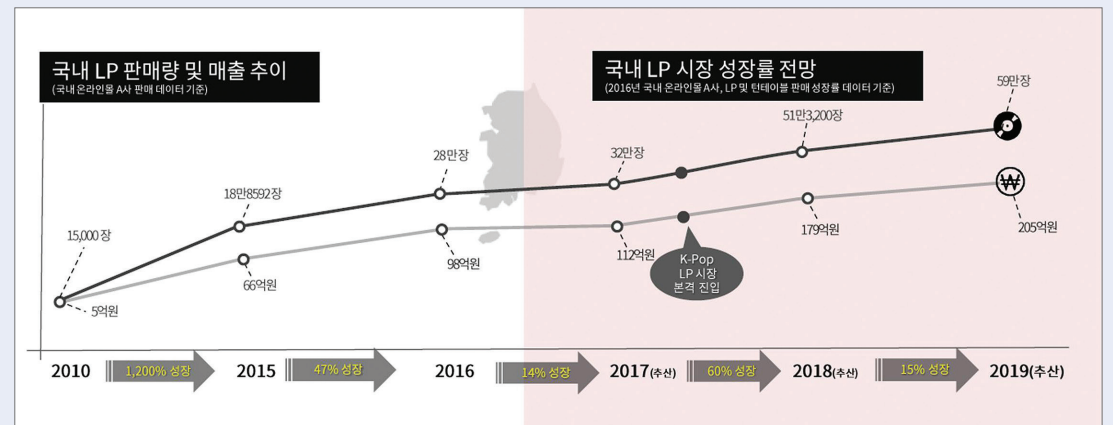


하중욱 마장뮤직엔터테인먼트 대표, 음악평론, 음악감독, 제작자, 연주가, 프로듀서, 강 등의 음악과 이웃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다.

이라는 고유의 카테고리를 명명해 놓고 있다. 이 산업의 기반, 혹은 전제 조건은 LP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Plant) 시스템의 유무와도 직결된다. 전 세계 LP 생산 공장의 현황을 모아 놓은 'Vinyl Pressing Plants'라는 사이트가 있다. 여기의 자료를 추적해보면, 전 세계에 총 78개의 LP 생산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총 29개 공장, 독일이 총 10개의 공장, 유럽에서는 총 27개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공장은 체코의 'GZ MEDIA'. 48개의 프레스머신을 통해 일일 생산 가능량이 무려 6만 5000장이다. 마장뮤직엔터테인먼트의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발매된 대부분의 LP들은 체코와 독일, 미국, 일본의 시설을 빌려 4~6개월의 대기표를 받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2017년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1개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2018년이 되면 크게 바뀔 것 같다. 우선 일본의 소니뮤직이 29년 만에 폐업했던 LP 생산 시설을 현대 시설로 재장비하고 2018년 3월부터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일본은 소니뮤직을 포함해 총 4개의 공장이 양산 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2018년에는

## 국내 LP 판매량 및 매출 추이, 성장률 전망



[출처 : 마장뮤직엔터테인먼트]

중국에서 2개의 공장이 새롭게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유럽 LP 공장의 아시아 지사 형태로 1개소가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생산 공장 자체의 기술력으로 생산 시스템을 보유한 '우리'에게는 다분히 위협적인 소식이다. LP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이를 위한 통계, 조사, 연구, 대책, 지원이 부재한 한국의 여건도 '우리'를 외롭게 한다. 인텔, 태광, 아남, 롯데, 삼성, 금성 등 국산 턴테이블도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 경쟁력 있는 국산 LP 플레이어의 개발과 생산도 속제로 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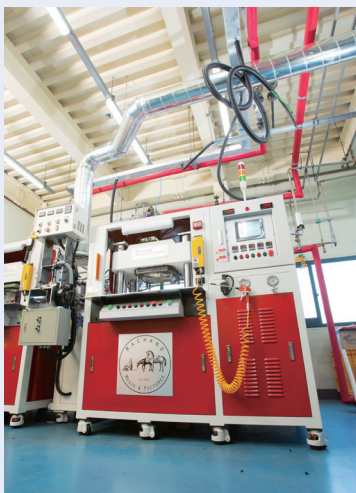
**스마트폰을 탈출한 미래 세대의 음악**

'나'는 음악평론, 음악감독, 제작자, 연출가, 프로듀서, 강의 등 음악과 이웃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다. 이 산만한 경험의 이면에는 음악 듣기를 즐기고, 음악을 모으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취미와 습관의 이력이 바탕하고 있다. LP는 음악 듣기의 가장 오랜 스승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매력적이고 우월한 재생 수단이었다. "왜 당신은 LP에 미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김없이 "LP는 현존하는 가장 우수하고 자연스러운 음질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신념을 빌려 왔다.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가?"를 따지듯이 물으면, "디지털 음악의 수학적 선택 범위에서 소거된 소리의 진실과 진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해왔다. 음악 특유의 숨결과 호흡, 풍부한 밀도는 LP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웅변에 가까운 음질의 우수성만으로 LP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현상을 설명하자니 원가 허전하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색스의 저서 '아날로그의 반격(The Revenge of Analog)'은 이 허전함을 채워준다. 책의 첫 장은 '레코드 판의 부활'이었다. 여기에 부제로 쓰인 '스마트폰을 탈출한 미래 세대의 음악'이라는 예언은 실로 사려 깊고, 희망적인 결언이었다. 저자는 2015년 영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LP의 주된 소비자 이 18~24세였고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라는 자료에 주목했다. 역설적으로 모든 음악이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아날로그 음악의 산물인 LP가 비로소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논지였다. 디지털의 일반화, 일반화의 오류는 무덤 속에 있던 LP를 불러냈고, 이를 소생시킨 혁명의 주체는 LP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였다는 설명이다. 원가를 조작해야 하고 까다로운 예의를 갖춰야만 소리를 내어주는 이 불편한 LP는 그렇게 미래의 음악 소비자들에게 '쿨'하고 '핫'한 대상이 됨으로써, 미래 세대의 음악이 될 것이라는 귀결이었다.

그랬다. 나의 LP 예찬은 비늘을 올려놓고 기다려야 했던 '설렘' 때문이었다. 그것은 음악이 지닌 가장 경건한 인트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



마정뮤직앤팩처스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LP 생산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전음악과 비엔나커피 60년 시간을 나누는 대학로 '학림'**

글 최현숙 객원기자

맥도날드, 스타벅스, KFC, 베스킨라빈스... 번쩍이고 소란스런 서울 대학로에 'since 1956 학림'이란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좁고 침침한 나무계단을 올라 2층에 들어서면 옛날의 어디쯤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 펼쳐진다. 잔잔히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빼곡히 꽂힌 LP판, 고풍색 피아노, 다방과 함께 세월을 보낸 것 같은 낡은 소파와 탁자. 학림은 60년간 한자리를 지킨 대학로의 터줏대감으로 대학생들의 토론 장소는 물론 문학, 연극, 미술 등 예술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천상병, 이청준, 김지하, 김승옥, 김민기 등이 학림에 앉아 글을 쓰거나 예술을 논했다. 학림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만을 다뤘다. 요즘에는 CD를 틀기도 하지만 신청곡을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LP를 찾아 틀어주고, 피아노도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치 과거로 여행을 온 듯한 느낌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다. 영화 '챔피언', '강원도의 힘', '번지점프를 하다' 등에 학림의 모습이 담겼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김수현과 김창완이 차를 나눴던 오래된 다방의 모습도 학림이다. 학림은 단순히 클래식 LP를 듣거나 추억을 더듬는 장소뿐 아니라 커피가 맛있는 집으로도 소문나 있다. 진한 커피에 크림을 얹은 비엔나커피는 학림의 대표 메뉴다. 차곡차곡 쌓인 세월의 흔적과 맛있는 커피가 공존하는 학림. 때문에 이곳을 찾는 손님은 연령대에 대중이 없다. 창가 쪽 테이블에서는 60대 남성 서너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고, 다락방 같은 2층 테이블에서는 젊은이들이 무선 인터넷을 켜고 비엔나커피와 크림치즈 케이크를 즐기는 모습이 흔하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들의 아지트로 사랑받는 곳, 대학로 학림의 현재다.



(위부터)대학로 '학림'의 한켠을 가득 메운 LP판. 학림의 내부는 흑백 사진과 낡은 소파 등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준다.

고 다녔다. 소유와 접촉, 감상의 행복을 맛보았던 일방적인 디지털 음악의 횡포에 대한 소심한 반격이자 저항으로 나는 내내 LP를 탐닉했던 것 같다. 정체도 모른 채 주입되는 4차 산업혁명의 공포 속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LP', '레코드판', '바

이널'을 감상하고, 소유하며, 열망하고 있다. LP는 새로운 시대의 음악이 지니는 희망이며, 거스를 수 없는 진행 방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토록 건강하고 정직한 매체의 복원과 생산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이유다. ①